

취·재

여. 90.8.3

# 새로운 탁아운동에 눈돌릴 때

## 절실한 필요성이 사회운동의 시작이다

하기 힘든 빈민층보다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지요.

탁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자체를 계층에 따라 차별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문직 여성들이 탁아제도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탁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요. 경제적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월급을 받는 정도의 비영리단

체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보조자격을 열어 놓아서 몇년간 보조를 하다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도 수용할 수 있는 식으로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요.”

탁아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전문직 여성들의 에너지를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일은 이제부터 새롭게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말하는 정병호 씨는 어떤 경우든 고립화된 집단 속에서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고 사회의식을 나눌 수 있는 연대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기자〉



국립의료원 어린이 놀이방

나타난다. 현재 탁아정책은 노동부, 보사부, 내무부, 문교부 등의 행정부서에 산재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이원적 행정의 소모성으로 인해 탁아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정책 자체가 지니는 문제 외에도 정책 시행 상의 문제도 지적된다. 규정 상으로는 3세 이하의 아동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세 이하의 아동을 기피하고 있으며, 오후 7~8시까지 하루 12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후 4~5시엔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탁아소가 많아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파출부 일을 하면서 관악구의 D 탁아원에 2살 된 딸을 맡기는 이아무개 씨(30·동작구 사당동)의 경우 집근처에 탁아소가 있으나 아직 어려 돌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하고 현재 D 탁아원에서 몇 시간을 사정해 겨우 입소 허락을 받았으나 아이를 데려가는 시간에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탁아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행 탁아제도의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탁아소의 자유재량권이 적절히 조화되면서 제도의 내용을 철저히 실행할 수 있는 탁아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 〈정현숙 객원기자〉

정책

## 무정책으로 일관 실속 있는 법안 제정 시급

이처럼 탁아에 대한 욕구가 분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탁아 정책은 무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60년대 초 아동복지법이 제정, 탁아정책에 관한 기본틀이 수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탁아관련 정책은 체계성이나 일관성 없이 그 명맥만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82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이 생기면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탁아시설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이래 3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탁아정책은 전무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새마을 유아원을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전이행정적 성격이 강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탁아 요구가 증가, 정부는 87년 이후 탁아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3세 이하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규정된 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노동부와 보사부를 중심으로 3세 이하의 영아에 대한 탁아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내에 직장탁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탁아법안을 서두르는 등의 제도 정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탁아 사업은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YWCA에서 운영하는 시범탁아소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88 시립 탁아원이 있다. 주로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건립, 운영되는 YWCA 시범 탁아소의 경우 1988년 인천을 시작으로 성남, 부산 등에서 각각 1백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마산, 광주, 전주 등이 올해 안에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92년까지는 대구, 조치원, 군산, 청주, 춘천, 태백, 제주, 목포 등 10여 개의 공단지역 내에 탁아소가 추가로 개원될 예정이다. 현재 YWCA 시범 탁아소는 생산직 기혼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월 1만원의 보육료(간식은 각자 준비하며, 탁아소에서 제공할 경우 월 2만4천원의 간식비가 추가된다.)로 오전 8시부터 오후

에 대한 정부 측의 기본 입장은 “아동의 보육은 일차적으로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어린이가 이 나라의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존재가 한 가정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동의 양육은 개별 가족 내의 책임을 넘어 전체 사회의 의무로서 국가의 의무조항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현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탁아설치 조항이 민간 주체의 소규모 비영리 탁아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정부의 탁아정책의 효율성 문제이다. 현재 보사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탁아를 필요로 하는 아동수는 약 82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공립 탁아소는 불과 1백80여 곳으로 1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민간탁아소는 2백50개에 5천여 명, 그밖에 8백50여 곳의 가정탁아소에서 약 6

만 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어 전체 아동의 약 10%만이 필요한 보호를 받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의 상당수가 기존의 민간 탁아소 옆에 위치한 민간 탁아소의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실한 지역을 외면한 채 이미 설립된 지역에 중복 설립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정책상의 불합리는 주무 행정부서의 난맥상에서도

〈탁아소 현황〉

| YWCA          | 대상아동     | 시 간        | 연 락 처        |
|---------------|----------|------------|--------------|
| 인천YWCA 시범탁아소  | 6세~취학전   | 8:00~19:00 | 032-514-2569 |
| 성남YWCA 시범탁아소  |          |            | 0342-42-9700 |
| 부산YWCA 시범탁아소  |          |            | 051-263-3939 |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          |            |              |
| 종로2가복지관       | 3세~취학전   | 8:00~18:30 | 734-4772     |
| 하월곡동복지관       | 3세~취학전   | 8:30~19:30 | 914-0709     |
| 88시립탁아원       |          |            |              |
| 강남 삼성어린이집     | 3~7세     | 7:00~19:30 | 514-6752~3   |
| 강동 명일탁아원      |          |            | 483-5116     |
| 강서 공학어린이집     |          |            | 665-1514     |
| 관악 해송어린이집     |          |            | 862-0053     |
| 관악 구암어린이집     |          |            | 883-6647     |
| 구로 새들어린이집     |          |            | 613-2052     |
| 노원 북부어린이집     |          |            | 934-7911~5   |
| 동대문 장인어린이집    |          |            | 212-5178     |
| 동작 흑석어린이집     |          |            | 813-9598     |
| 동작 서울어린이집     |          |            | 817-1626     |
| 마포 서강어린이집     |          |            | 337-1394     |
| 마포 공덕어린이집     |          |            | 704-1366     |
| 서대문 선화어린이집    |          |            | 313-0177     |
| 성동 성일어린이집     |          |            | 464-5219     |
| 성동 선미어린이집     |          |            | 467-1148     |
| 성동 별하어린이집     |          |            | 923-9615     |
| 송파 감일어린이집     |          |            | 419-6795     |
| 송파 신천어린이집     |          |            | 400-3837     |
| 양천 신나는어린이집    |          |            | 642-6963     |
| 영등포 꿈나무어린이집   |          |            | 831-5813     |
| 용산 원효어린이집     |          |            | 704-2463     |
| 용산 이태원어린이집    |          |            | 798-2592     |
| 은평 종합사회복지관    | 307-5975 |            |              |
| 은평 개나리사회복지관   | 385-0331 |            |              |
| 중구 신당1동사회복지관  | 231-9457 |            |              |
| 중구 을지사회복지관    | 267-4539 |            |              |
| 중랑구 유린사회복지관   | 433-1472 |            |              |
| 중랑구 면목1동사회복지관 |          |            | 495-4604     |

“어린이가 이 나라의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존재가 한 가정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 〈탁아모 문의처〉

|           | 탁아모 명칭        | 비              | 용        | 연 락 처    |
|-----------|---------------|----------------|----------|----------|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베이비시티 (탁아모)   | 9:00~18:00     | 776-2782 | 753-6645 |
|           |               | 1만원            |          |          |
| Y W C A   | 지역탁아모         | 8:00~18:00     | 547-1831 |          |
|           |               | 1만2천원          |          |          |
| 태화사회복지관   | 가정관리인 (대리양육모) | 8시간 근무         | 732-5631 | 739-2555 |
|           |               | 1만2천원          |          |          |
| 평화방송문화센터  | 탁아교사          | 신생아 기준 월 25만원선 | 277-9921 | (~3)     |
|           |               |                |          |          |
| 기독교방송문화센터 | 탁아교사 (모)      | 신생아 기준 월 25만원선 | 745-4578 |          |
|           |               |                |          |          |
| 여성신문교육문화원 | 사랑의육아인        | 8시간 기준         | 512-3301 | (~3)     |
|           |               | 1만1천원          |          |          |

\* 기준시간외 초과근무시 1시간당 1천원 추가